

### ‘연명의료결정법’ 내년 2월 시행

#### 시험사업 기간 중 존엄사 선택 환자 7명

내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시 중인 연명의료 시험사업 중간결과를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다.

시험사업이 실시된 후 11월 24일 기준으로 연명의료계획서 이행을 포함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을 선택한 존엄사가 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는 11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됐다.

연명의료 시험사업은 올해 10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5개 기관)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 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 2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 4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 1건으로 총 7건이었다. 현재 이행 한 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험사업 실시 한 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돌파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시험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많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1 상담을 통해 작성되고, 1명 당 통상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남성 7건, 여성 4건으로 총 11건이었다. 연령대는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말기환자로 10명은 암환자였고, 1명은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자였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의사들은 작성 환자 1명과 2~3회 이상 상담을 진행했다. 한번 상담 시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상담을 진행한 건수는 44건인데 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건수는 11건으로 나타나, 환자나 환자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험사업이 종료되는 2018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할 수 없다. 단 시험사업 기간 동안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연명의료 시험사업 추진 및 법률 개정, 교육·홍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우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2월 4일부터 운영한다.

의료기관 및 예비 등록기관에 대해서도 연명의료결정법 및 연명의료 업무 수행 절차 등에 관한 전국 단위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위한 안내자료 발간과 TV·라디오 방송 및 지하철 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 국군간호사관학교 ‘돌봄의 날개’ 제막 행사



외연수 결과 보고, 교육과정 개발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국군간호사관학교 발전방안’ 특강 및 토론이 이뤄졌다.

세미나에 앞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상징조형물 ‘돌봄의 날개’(사진) 제막행사가 열렸다. 천사의 날개와 간호사의 손길을 모티브로 설계·제작됐다.

군 장병들의 건강수호천사로 소명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동문들의 마음을 모아 올해 6월부터 건립이 추진됐다. 제막행사에서는 동문인 이육금 시인이 헌시 ‘돌봄의 날개’를 낭독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는 붕괴, 협착, 절단 등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1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구·부산지역에서 9~10월 시험사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용 ‘사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노동자들에게 직접 배포하고 홈페이지(www.moel.go.kr)에 공개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 대구시간호사회 간호정책아카데미 개최

대구시간호사회(회장 박현숙)는 2017년 간호정책 아카데미를 12월 8일 호텔 인터볼고대구에서 개최했다. 대구지역의 간호관리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판례로 알아보는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 주제로 김민경 변호사(중합법률사무소 다현)가, ‘간호법 제정과 간호정책’ 주제로 서순림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특강을 했다.

박현숙 회장은 “간호 및 보건의료 정책방향과 관련 법률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충북간호사회 학술논문 발표회 개최

충북간호사회(회장 한명자)는 2017년 학술논문 발표회를 11월 30일 청주 52번선에서 개최했다.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임상간호연구논문 4편이 발표됐다. 박미숙 한국교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총평을 했으며, 충북간호사회는 발표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세계여행’ 주제로 이광주 여행가가 특강을 했다.

한명자 회장은 “비쁜 근무여건 속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해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간호현장에서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 제주도간호사회 간호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회장 강기선)는 ‘2017년 간호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을 11월 24~25일 개최했다.



강기선 회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현안과제에 대해 보고했으며,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행복하고 여

유 있는 삶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송악산 올레걷기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 보건간호사회 전국 보건소장 워크숍 개최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순옥)는 전국 간호사 보건소장 워크숍을 12월 1~2일 개최했다. 보건간호사와 보건간호사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간호사 적정인력 배치와 권익 증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순옥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간호사들이 리더로서 선두에서 댈 수 있도록 보건간호사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간호사회는 지난 11월 17~18일 남부 보건간호사의 위상 정립 및 권익 옹호를 위해 남부간호사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POINT 꼭! 사용하세요.

대한간호협회  
Korean Nurses Association

2015년도 분 회원복지포인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소멸됩니다**

포인트 미사용 회원분들은 자동 소멸되지 않도록 소멸일자 전에 포인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www.nurselife.or.kr | ☎ 1566-3137

### 정신간호학회 총회... 새 회장 현명선 교수

한국정신간호학회는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대회를 12월 7일 열고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새 회장으로 현명선 아주대 간호대학 교수(사진)가 취임했으며, 부회장(차기회장)으로 정명실 성신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선출됐다.

학회에 교수들을 위한 임상연수 프로그램, 역량강화 세미나 등을 계속할 계획이다. 정신간호학회지의 SCOPUS 등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 유

지에 힘써 계륜이다. 유관 학회·협회와의 교류에 힘쓰기로 했다.

학술대회는 ‘감성과 간호’ 주제로 열렸다. 우수 논문상을 김고은 천주성요한병원 간호사와 장신주 을지대 간호대학 교수가, 우수 심사위원상을 김희정 가천대 간호대학 교수와 안윤자 동신대 간호학과 교수가 받았다.

최수정 기자 sjchoi@

### 간호행정학회 총회... 새 회장 서문경애 교수

한국간호행정학회는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대회를 12월 8일 열고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새 회장에 서문경애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사진)가 취임했으며, 부회장(차기회장)에 김경영 단국대 간호대학 교수가 선출됐다.

학회는 간호행정학회지의 SCOPUS 등재와 질 제고에 주력하기로 했다. 간호관리학 국가시험 문항 개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역별 연구자 소모임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학

술연구 지원사업 및 정책연구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수 논문심사위원상을 김미영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김명자 동의대 간호학과 교수가 받았다.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간호관리 교육방안 및 간호관리자 리더십’ 주제로 열렸다.

주혜진 기자 hjjoo@

### 기초간호학회 총회... 새 회장 정재심 교수

한국기초간호학회는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대회를 12월 2일 열고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새 회장으로 정재심 울산대 산업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 교수(사진)가 취임했으며, 부회장(차기회장)으로 안경주 청주대 간호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학회는 기초간호학 실습교육 강화 연구 개최, 일반/정책연구 지원 등을 통해 기초간호학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데 힘쓰기로 했다.

한국장학회가 지원하는 한국우수 논문상을 김윤주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박사과정생팀과 이순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간호사팀이 수상했다. 우수포스터상을 6개 팀이 수상했다.

학술대회는 ‘3주기 간호교육인증을 위한 기초간호 교육전략’ 주제로 열렸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부모자녀건강학회 총회... 새 회장 김수 교수

부모자녀건강학회는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대회 12월 8일 열고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새 회장에 김수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사진)가 취임했으며, 부회장(차기회장)으로 김정수 경북대 간호학부 부학장이 선출됐다.

학회는 회원역량강화를 위해 학술대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지역별·분야별 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부모자녀건강학회지를 연 2회 발간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완료하고, 학회 홍보와 회원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동계학술대회는 ‘동양철학에 근거한 부모자녀건강(2)’ 주제로 열렸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간호학을 **전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NAVER 간호교육연수원 검색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